

(財)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發掘調査 現場說明會 第122輯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공장신축부지내 문화재
發掘調査 現場說明會

2008. 4



財團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法人

Foundation of East Asia Cultural Properties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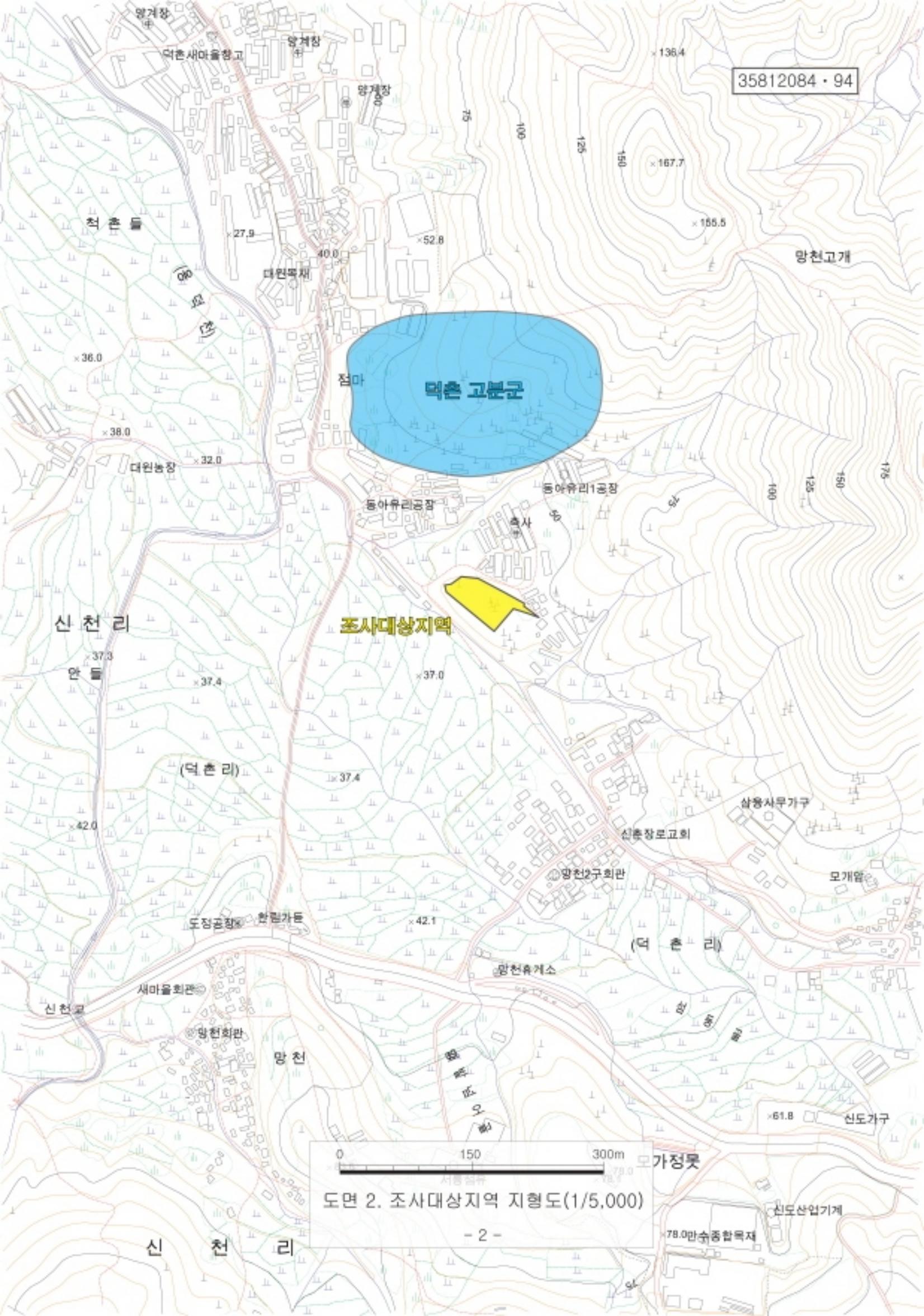
358123 봉림

0 750 1,50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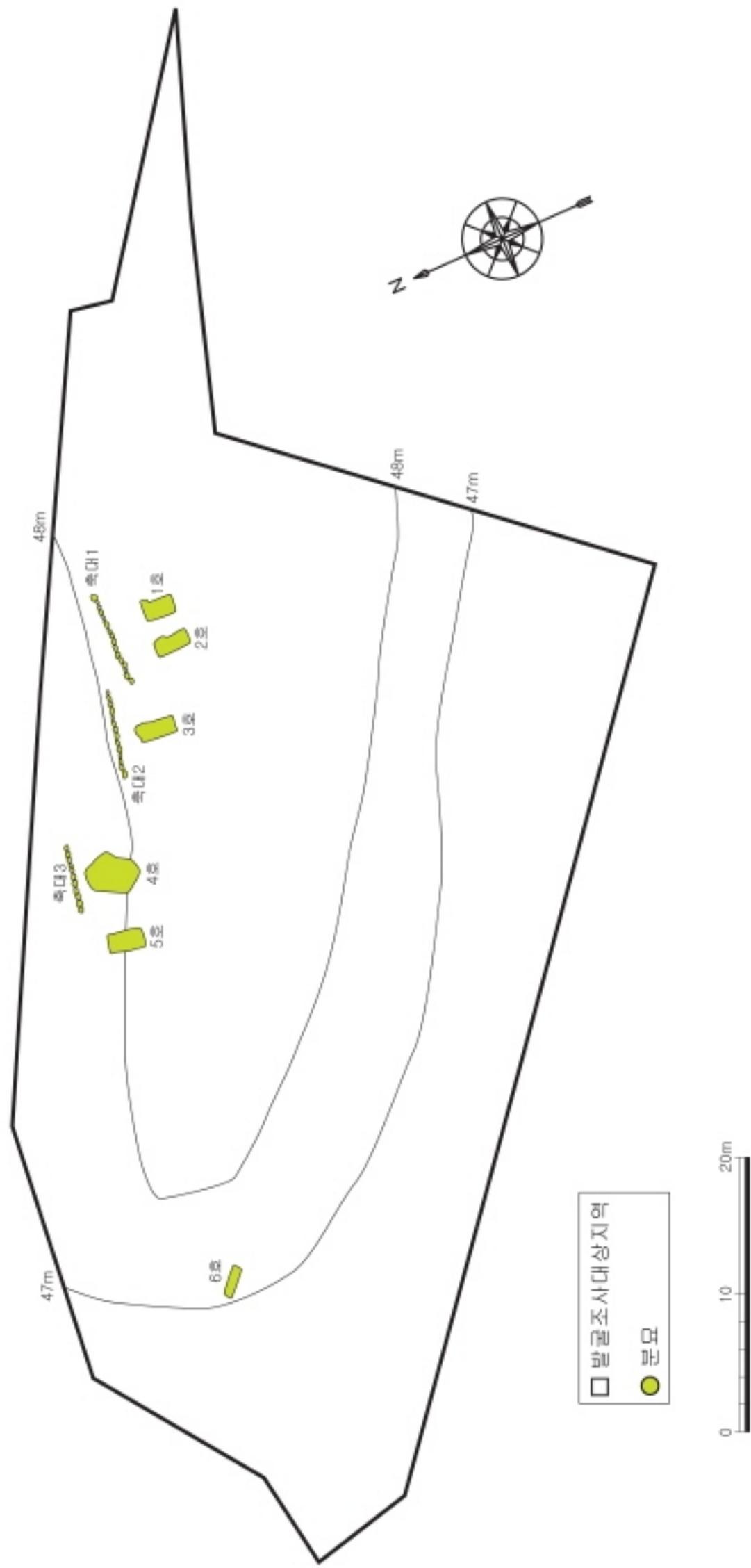
도면 1. 조사대상지역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 1 -





0 150 300m
 도면 2. 조사대상지역 지형도(1/5,000)



도면 3. 조사대상지역 유구배치도(1/400)

I. 조사개요

1. 조사명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공장신축부지내 문화재 발굴조사

2. 조사대상 지역 및 면적

경남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114-1번지 일원(3,352m²)

3. 조사기간

2008년 03월 06일 ~ 2008년 04월 03일

4. 조사기관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5. 조사단 구성

조사 단 장 : 신용민(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부원장)
지도 위원 : 임효택(동의대학교 교수, 도문화재위원)
박광춘(동아대학교 교수, 문화재전문위원)
책임조사원 : 배덕환(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조사부장)
조사보조원 : 김재홍(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보 조 원 : 곽태현(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김경탁(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6. 조사의뢰 기관

대진기업

II. 조사경위 및 목적

조사대상지역은 경남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114-1번지 일원으로 한림면 신천리 공장신축부지에 해당한다. 본 조사지역에 대한 조사경위는 다음과 같다. 2007년 7월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장유구 및 유물은 수습되지 않았으나 입지조건상 매장문화재가 분포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후, 동년 9월 문화재청에서 본 조사대상지역에 대해 발굴조사에 앞서 입회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조사지역에 대해 우리 연구원에서 입회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사지역에서 분묘 2기가 확인되었으며, 그 주변으로 소량의 조선시대 자기편·옹기편·기와편 등이 수습되었다.

아울러 2007년 12월 우리 연구원에서 실시한 시굴조사에서 조선시대 분묘 5기가 검출되었다. 따라서 금번 발굴조사는 공사시행 이전에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매장문화재의 유무에 따른 문화재 보존대책 수립 및 공사 시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본 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III. 조사대상지역 개관 및 주변유적 현황

1. 조사대상지역 개관

금번 조사는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공장신축부지내 유적조사’로 조사지역은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114-1번지’이다. 한림면은 김해시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동쪽으로 낙동강을 경계로 밀양시 하남면과 접하고, 서쪽으로 진례면, 남쪽으로 생림면과 김해시 삼계동, 서북쪽으로 진영읍과 창원시 대산면과 접하고 있다. 본래 이북면(二北面)이던 것이 1987년 1월 한림면(翰林面)으로 개칭되었다. 한림이란 명칭은 중심마을인 한림정에서 따온 이름이다. 이는 조선 초 문신인 김계희(金係熙)가 단종이 쫓겨나자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화포천변의 한적한 곳에 정자를 짓고 한림정(翰林亭)이라고 이름을 붙인데서 유래한다고 전해지고 있다. 현재의 한림면은 경전선 철도 및 국도 14호선이 통과하여 농업적 입지조건에 적합하며 넓은 평야와 중산간지역으로 구성되어 생활기반이 주로 농업과 축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낙동강 하류 저지대 지역에 속하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화포천 유역으로 수해가 잦다. 이 지역의 역사유적과 문화재로는 용덕리 고분군, 덕천 고분군, 용곡 고분군, 용곡 지석묘 등의 문화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2. 주변유적 현황¹⁾

1) 용덕리 고분군

한림면 용덕리 장원마을의 맞은편 야산 돌출부 윗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산중턱에 철타이 세워져 있고 그 아래쪽에 고분의 개석이 노출되어 있다. 그 규모는 비교적 중·소형 고분으로 삼국시대 것으로 추정된다.

2) 덕촌 고분군

한림면 신천리 덕촌마을의 비교적 완만한 산등선에 위치한다. 1998년 동아대학교박물관에서 실시한 지표조사에서 시기를 알 수 있는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삼국시대 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봉토분이 분포하는 것으로 소개되었다.

한편, 2007년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실시한 지표조사에서 명확한 시기를 알 수 있는 유물은 수습되지 않았으나 골짜기 아래쪽에서 고려시대 이래의 도기편 및 자기편 등이 소량 채집되었다.

3) 용곡 지석묘

주촌면 소재지에서 용곡마을로 진입하는 도로와 맞닿은 논바닥에 놓여있다. 용곡 지석묘 앞으로 덕암 소류지에서 흘러오는 작은 동천이 있다. 이 지역의 지석묘들은 대체로 하천의 서쪽에 위치해 있으나 이 지석묘는 동쪽 산자락의 평지에 입지한다. 논을 개간하면서 유구 일부가 파괴되어 상석이 밑으로 누워있는 상태이다. 상석의 표면에 성혈이 남아있다.

4) 용곡 고분군

주촌면 덕암리 용곡마을에 위치한다. 용곡 지석묘와 인접한 동쪽 야산에 분포하고 있다. 조선시대~근현대 분묘를 조성하면서 많은 할석이 외부로 노출되었는데 그 안에서 소량의 삼국시대 토기편들이 수습되었다. 도굴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분묘 축조와 묘목을 심으면서 일부 파손된 것으로 보인다.

1) 동아대학교박물관, 「김해시 문화유적분포지도」, 1998

IV.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

1. 조사방법

조사대상지역은 김해시 삼계동에서 진영읍으로 이어지는 14번 국도상의 망천고개 북쪽의 신천리 덕촌마을에 위치한다. 조사지역은 慶雲山(378.9m)에서 뺀어 내려온 여러 지맥의 한 갈래에 발달한 준평원화 단계에 이른 구릉지로 조사지역과 북쪽으로 마주보는 독립구릉에 덕촌 고분군이 위치한다.

이 지역은 2007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 실시한 지표조사에서 유구 및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유적이 입지하기에 양호한 조망권을 갖춘 곳으로 유적의 분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우리 연구원에서 실시한 입회조사 결과, 조사대상지역의 북서쪽과 남서쪽에서 등고선과 직교된 방향으로 분묘 2기가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시대 분묘가 유존해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 북서쪽 구릉사면을 따라 표본시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5기의 분묘를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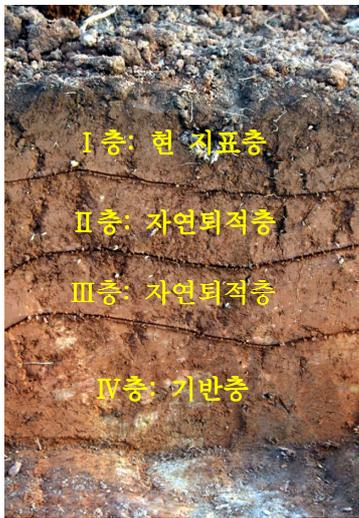
따라서 금번 발굴조사는 조선시대 분묘가 유존해 있을 가능성이 높은 북서쪽 구릉사면을 중심으로 전면적으로 체토하며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시굴조사에서 조사된 5기의 분묘 외의 1기의 분묘가 추가로 조사되었다.



도판 1. 조사대상지역 전경(남서→북동)

2. 조사내용

조사대상지역의 토층 퇴적양상은 일부 삭평된 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토층양상은 크게 4개층으로 구분된다. I층은 현 지표층으로 암적갈색 사질점토층을 이루고 있으며 상부는 부식토가 덮고 있다. II·III층은 적갈색 사질점토층으로 이루어진 층이다. 점성이 매우 강하며 풍화암반편이 함유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IV층은 기반층인 풍화암반층이다. 조사구간 내에서는 시굴조사시 검출된 분묘를 포함하여 총 6기가 확인되었다. 6기의 분묘 모두 기반층인 풍화암반층을 굴착하고 조성되었으며 장축방향은 등고선과 직교한다. 1~5호 분묘는 조사지역의 정상부를 중심으로 북쪽사면에 분포하고 있으며, 6호 분묘는 남서쪽 사면에 입지한다.



도판 2. 토층퇴적 양상



도판 3. 유적 전경(동→서)

1) 1·2호 분묘

1·2호 분묘는 조사구역의 북동쪽사면에 입지한다. 시굴조사시 트렌치 단면에서 봉토의 잔존 범위 및 상태가 확인되었는데, 봉토는 적갈색 사질점토층과 갈색 사질점토를 이용하여 조성하였으며, 잔존한 봉토를 제거하자 바로 2호 분묘가 검출되어 1·2호 분묘는 합장묘일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1호 분묘의 규모는 길이 236cm, 너비 102cm, 깊이 108cm이고, 2호 분묘의 규모는 길이 248cm, 너비 96cm, 깊이 103cm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주축방향은 남-북방향으로 등고선 방향과 직교하게 축조하였다. 1·2호 분묘는 회를 사용하여 매장주체부를 밀봉한 灰墓로 기반층인 풍화암반층을 굴착하고 조성하였는데 移葬으로 인해 동장벽의 남벽이 일부가 파괴되었고 내부 토층의 퇴적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1·2호 분묘에서 사용된 회는 패

각·점토·풍화 암반을 섞어서 만들었으나 쾌각의 양이 많아 응집력이 떨어져 쉽게 부서지는 상태로 양질로 보기 어렵다. 출토된 유물은 없다.

묘축은 1·2호 분묘가 조사된 북쪽 경사 아래 지점에 위치하며 동-서방향으로 연결된다. 잔존하는 묘축의 길이는 약 370cm이며, 약 30~50cm 크기의 할석으로 조성하였다.



도판 4. 1, 2호 분묘 조사완료 전경(남→북)



도판 5. 1호 분묘 조사완료(남→북)



도판 6. 2호 분묘 조사완료(남→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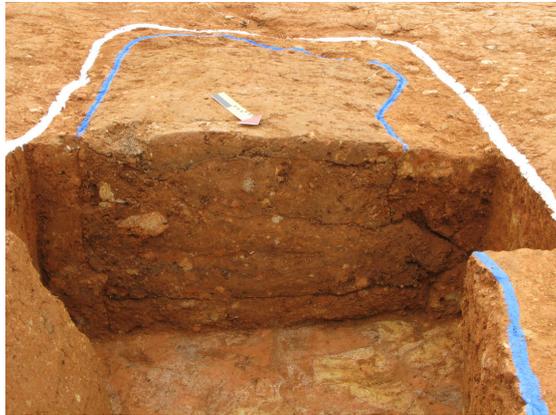
도판 7. 2호 분묘 조사완료 세부

2) 3호 분묘

3호 분묘는 1·2호 분묘의 서쪽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기반층인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성되었으며 주축방향은 북서-남동향으로 등고선 방향과 직교한다. 규모는 길이 260cm, 너비 168cm, 잔존깊이 72cm로 移葬으로 인해 분묘의 북단벽 일부가 파괴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다.

묘축은 북쪽 경사 아래 지점에 위치하며 동-서방향으로 연결된다. 잔존하는 묘축

의 길이는 약 650cm이며, 크기 약 30cm 내외의 할석으로 축조하였고 면고름은 구북쪽으로 1단 정도 조성하였다.



도판 8. 3호 분묘 토층사진



도판 9. 3호 분묘 조사완료 전경(남→북)

3) 4호 분묘

4호 분묘는 시굴 조사시 설치한 트렌치에서 묘축이 검출된 유구로 전면적으로 표토를 제거한 뒤 조사를 실시하였다. 4호 분묘는 기반층인 풍화암반층을 굴착하고 조성되었으며, 移葬과 나무뿌리 등으로 인해 매장주체부가 교란된 상태였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주축방향은 북동-남서방향이고 매장주체부의 주축방향은 남-북방향이다. 규모는 길이 370cm, 너비 235cm, 잔존깊이 78cm이며 매장주체부의 규모는 길이 210cm, 너비 86cm, 잔존깊이 37cm 이다. 출토된 유물은 없다.

묘축은 4호 분묘의 북쪽으로 약 1m 이격된 거리에 조성되었고 잔존깊이는 485cm이며 동-서방향으로 이어진다.



도판 10. 4호 분묘 토층



도판 11. 4호 분묘 조사완료(북→남)

4) 5호 분묘

5호 분묘는 기반층인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성하였으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고 주축방향은 북동-남서방향이다. 규모는 길이 270cm, 너비 168cm, 잔존깊이 72cm이다. 내부토층은 적갈색계의 점질토로 풍화암반이 포함되어 있으며 충진토의 흔적은 관찰되지 않았다. 남단벽과 바닥면은 정지작업 없이 굴광면을 그대로 사용하여 요철면이 남아있다. 출토된 유물은 없다.



도판 12. 5호 분묘 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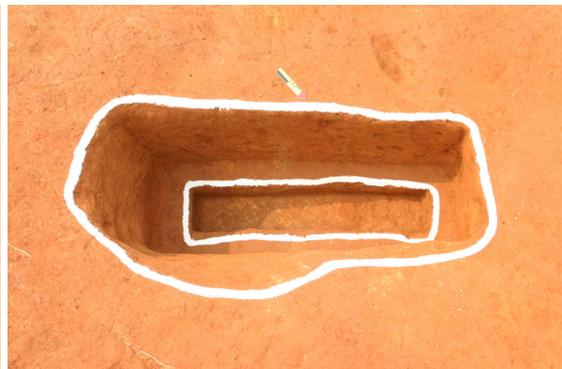
도판 13. 5호 분묘 조사완료사진(북→남)

5) 6호 분묘

본 유구는 조사구역의 남서쪽 사면에 입지한다. 유구의 설치층은 기반층인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성되었고 주축방향은 북서-남동방향이다. 규모는 길이 230cm, 너비 106cm, 잔존깊이 120cm이다. 묘광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이단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고 관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매장주체부의 규모는 길이 164cm, 너비 35cm, 깊이 18cm이다. 상면에 상태가 양호한 인골이 남아 있었는데 신장은 대략 160cm이고 肢骨 간의 간격이 좁은 것으로 보아 젊은 뒤 관을 쓰지 않고 시신을 바로 안치한 것으로 보인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도판 14. 6호 분묘 노출 완료(북서→남동)



도판 15. 6호 분묘 조사완료 (북서→남동)



도판 16. 지표수습
(청자 상감 대접 구연부편)

도판 17. 지표수습
(분청사기 대접 저부편)

도판 18. 지표수습
(백자 대접 저부편)

V. 조사결과 및 조사단 의견

1. 금번 조사는 한림면 신천리 공장신축부지내 문화재 발굴조사에 해당한다. 조사대상지역은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114-1번지 일원으로 조사대상 면적은 3,352 m²이다.

조사대상지역은 2007년 우리 연구원에서 입회조사와 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기의 분묘가 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백자편과 옹기편, 그리고 기와편 등이 수습되어 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곳이다.

2. 조사대상지역에 걸쳐 전면 제토를 실시한 결과 6기의 분묘가 조사되었다. 6기의 분묘 모두 기반층인 풍화암반층을 굴착하고 조성되었으며, 장축방향은 등고선과 직교한다. 이들 분묘 중 2기는 灰墓, 4기는 토광묘로 이 가운데 4기가 移葬으로 인해 매장주체부가 파괴된 상태였다. 6호 분묘는 이단굴광한 유구에 관을 쓰지 않고 시신을 안치하였으며 상면에 상태가 양호한 인골이 남아 있었다. 출토유물이 없어 분묘의 정확한 연대를 확인할 수 없지만 주변에서 수습되는 자기편 등을 통해 볼 때 본 유적은 14세기 이후로 오늘날까지 묘역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3. 금번 조사를 통해 동일 묘역 내에 다양한 형식의 조선시대 분묘의 존재와 당시 상장의례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이상을 종합한 조사단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조사가 완료된 분묘 6기의 유구는 기록보존을 철저히 하였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가 완료된 후 공사를 시행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조사대상지역 주변으로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임으로 주변 일대에 대한 현상변경이 예상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매장문화재의 조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財)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現場說明會 第122輯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공장신축부지내 문화재

發掘調査 現場說明會

인 쇄 일 / 2008년 4월 1일

발 행 일 / 2008년 4월 2일

編輯·發行 / 財團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法人

630-810 경남 마산시 양덕동 96-20
동문빌딩

TEL : (055) 265-9150~3

FAX : (055) 265-9154

E-mail :

feaci03@hanmail.net
